

용서받지 못한 자

올해도 <성삼일>을 은혜로 보내게 하심을 감사한다. <성금요일날> 그분을 내 마음의 십자가에 매달고 그분의 피값으로 나의 용서를 구한다. 토요일 새벽기도 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누가 23 장 34 절’라는 그분의 애절한 구원이 내 마음에 눈물되어 한없이 흘렀다.

저들은 나 자신이다. 저들은 그분을 판 유다이고 그분을 세번 부정한 베드로요, 정치적 야심을 가진 제사장이요, 종교 지도자들이다. 십자가에 못박고 창으로 찌른 로마 병사들이며, 그분을 야유한 관리들이요, 우매한 민중들이며 그분을 부인하고 도망간 제자들이다. 내가 그들이다. 그런데 토요일 새벽에 나를 더욱 슬프게 한 것은 내가 스스로 지은 죄를 알지 못하는 부분이다. 가롯 유다는 “내가 죄없는 그분을 배반하여 그의 피를 흘리게 하였으니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의 죄를 알았기에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고 스스로 죄를 판결하여 자살을 선택하는 두번의 잘못을 저질렀기에 지금까지도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되었다.

용서에는 두가지로 나눌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그 하나요,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하는 것이 다른 하나다. 전자는 내가 상대방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억울하고 분노하여 복수하고 싶은 대부분의 경우이다. 즉 내가 피해를 본 경우이다. 이 경우는 그분께서 이미 정답을 주셨다. 베드로가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묻자 예수께서 “일곱번씩 일흔번 용서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벽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완전히 용서함을 70 번 더 완벽하게 용서하라는 뜻이다. 이는 <영원히 용서하라>라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영원히> 라는 절대적 가치의 언어를 사용할수 없으므로 결국 용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인 셈이다. 상대방을 용서하고 못하고는, 그 기준을 내가 만들었기에 용서의 판단도 내가 하게 된다. 그 판단은 극히 주관적이고 공정하지 못하다.

<정의>란, 정의 기준 자체가 시대성이나 역사성으로 다수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해서 그 <정의>가 올바르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정의>는 단답형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용서를 일임하고 상대방을 잊고 살려고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니 동산에서 세번 반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잔이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질 수 없는 잔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이 잔을 제가 마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제가 이루겠습니다.”

이 잔속에 무엇이 들었길래 예수는 세번이나 갈등하고 번민한 것일까?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은 원수를 스스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용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받은 존재이자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발견하는 것이다. 인간의 용서는 행위가 아니라 발견인 것이다. 인간의 용서는 ‘내가 너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용서받은 너를 인정하는 것이다.’ 악마가 예수께 유혹한 마지막 말은 ‘무죄한 너를 죽인 저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겠는가> 이었을 것이다. 나의 단골 정비공장 사장님이 권면한 인천지역의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신다. 그분은 사회에서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데 그분의 목회자론도 그러하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참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잔상이 내 가슴에 있다. 즉 예수의 그 잔 속에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과 용서할 수 없는 용서>가 들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미흡하나마 가능하다. 이제 나이도 먹어가고, 원수가 될 일은 피하며,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고 양보하면 어느정도 가능하다. 또 원수질만큼 그런 에너지도 그럴 객기도, 시간도 여유롭지 않다. 그 무엇보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진작 나는 모른다는거다. 내가 상대방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다면 내가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든지, 또 하나님께 속죄와 참회의 기도로 용서를 구할 것이다. 하지만 나로 인해 그들은 상처받고 나를 용서할 수가 없는데, 나는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런 용서도 해 주실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너무 슬프게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남남들이겠는가. 분명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나를 사랑한 사람들일 것이다. 나의 아내고 나의 자식들이고 나의 형제들이고 나의 친척들일 것이다. 나의 친구들이고 나의 직장 동료들이고 나의 고객들이었을 것이다. 결코 적지 않은 그들속에서 사랑받고 사랑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당연히 나의 일방적인 결론으로 모두 만족하고 상처가 없는 것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로인해 상처받고 한을 가진채 살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나는 그들에게 너무 미안하여 새벽의 십자가 아래서 일어설 수가 없었다. 나는 나의 잘못을 모르기에 <용서받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다. 무심한 사람이다..

“주여, 저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저는 제가 한 일을 모르고 있나이다.”